

[아버지 칼럼 5] 아버지가 만드는 명절

김형준 목사 / 페이지 수: 2

명절을 앞둔 주일날 예배시간 중에 주부들을 모두 일어나게 합니다.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 합니다. 이분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번 명절에 가장 수고할 분이요,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주부의 위치는 명절에 가장 힘들게 됩니다. 명절은 가족끼리 안고 있는 해묵은 문제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명절이라는 명분하에 불편하고 힘들던 관계의 가족들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으로는 간절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심판받는 심정으로 맞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식구가 만나는 일로 인해서 겪는 가사의 과충함과 명절이기 때문에 즐겁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힘들게 하는 시기입니다. 아내는 ‘가정 안에 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가 밝은 빛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힘들게 되면서 명절의 가정은 우울함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아내요 엄마인 이분들의 모습이 빛을 발하는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고 감사와 함께 격려해 드립시다. 이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도록 기도해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자매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감동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가정안에서의 주부의 모습을 함께 감사하며 격려하는 것 자체가 잊혀진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추수의 계절에 잊혀진 감사와 축복의 삶을 회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맞이하는 명절이 어떨까를 한번만이라도 돌아보고, 생각한다면 명절은 묻혀진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와 삶을 많이 캐낼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우리의 명절은 피하고 싶은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명절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으면서도 만나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사랑과 나눔과 축복을 바라 고 사모하는 무의식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따스함과 격려,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위로와 친밀감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갈망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배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가정이요, 가족 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대와 희망은 명절이 끝나고 돌아올 때 쯤이면 또 다른 상처를 가슴에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의 기대와 희망을 어머니와 아내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기에 명절에 대한 추억, 가정에 대한 따

스함,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향수가 우리의 존재 깊숙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의 여인들은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졌고 때로는 고독해졌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이들의 어깨에 지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맡아주던 이들의 마음은 텅 비어버리고 굶주림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와 남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의 빈자리를 자신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명절은 아버지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찾는 것보다는 처가를 찾는 남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내를 바라보는 애처로움과 자신도 메꿀 수 없는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남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명절을 기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명절을 즐겁게 만들뿐 아니라 명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축복하고 가족들에게 추억을, 사랑을, 꿈을 주는 시간과 공간의 명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감사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모든 일에 감사의 형용사를 만들고 부사를 만들고 동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 줍니다. 그래서 명절은 격려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언어를 쏟아 붓는 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격려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과 함께 그 옆에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입술에서 이 격려의 언어와 성김이 가정 안에 부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흐를 수 없는 그 광야에 농부가 땅을 파서 물을 흐르게 하고 또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가정이 과일과 푸르름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명절에 힘든 분은 어머니요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은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축복의 시간과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즐거운 명절을 창조하는 신적인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기적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천국 기획국에서도 상당히 협조하실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하하하

<김형준 / 동안교회 담임목사>

* 출처 : 두란노 아버지학교(<http://www.father.or.kr>)